

소신지원·잠재적 인재, 동국대로...

현인택 장관, 총무원장 스님 예방

동국대 2010학년도 수시 1차 모집에서 이색적인 경력과 수상경력을 가진 학생들이 소신있게 지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은정 불교문화진흥원 불교신문 등이 주관해 열린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 교리 경시대회에서 고등부 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한 동대부고 3학년 서정원, 허용민 학생이 최근 나란히 동국대 불교학부에 수시 합격했다. 두 학생은 내신 성적과 면접 점수가 우수해 장학금도 받게 됐다.

서정원 군은 이미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당시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해 불교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계획을 소신 있게 밝힌 바 있다. 동대부중과 동대부고에서 파라미타 회장직을 맡아온 서 군은 “불교학자인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하니 기쁘다”며 “앞으로 불교학 분야를 전공해 학과공부를 더욱 심도 있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행할

교리경시대회 수상 2인, 나란히 불교학부 합격 시인 등단 학생 등 '이색경력자' 도 수시 선발

등과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래서 서 군은 꿈을 이루기 위해 영어공부를 하며 기본 소양을 닦고 있다.

허용민 군은 동대부고에 입학한 후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종교수업을 통해 불교교리에 관심을 갖게 됐고, 파라미타 활동을 통해 불자 친구들도 사귀었다. “친구이자 동반자이던 정원이가 준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라는 책도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3학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학의 중심인 동국대 불교학부에 입학하기로 결심하게 됐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불교학부 선배들도 만나 진로를 상담하고 있다는 허 군은 앞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해 교법사가 되

고 싶은 꿈을 키워갈 생각이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이색 경력을 가진 학생들도 다수 합격시켰으며, 특히 입학사정관제도에 따라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선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문과에 합격한 노지연(고양예고3)양은 올해 계간 <시인세계>에서 주최한 신인상 공모전에서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한 경력을 갖고 있다. 하건우(남해 해성고)군은 인터넷에 법률관련 블로그를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생활 속 법률 활동을 펼친 능력 인정돼 법학대에 선발됐다. 장애우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서울 국제여성영화제에서 감독으로 데뷔한 이다솜(이대법설 미디어고3)양은 입학사정관의 눈에

들어 영화영상학과에 입학하게 됐다. 또 비영리단체를 창립해 무명의 여성 합창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UCC 공모전에서 베스트 영상으로 선정되기도 한 임수연(현대고3)양도 이번 수시 모집에서 광고홍보학과에 입학하는 영예를 안았다.

동국대는 24개 학부에서 모두 69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인 '자기추천 전형'으로 선발했다. 내신이나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학교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쌓은 능력을 전형기준을 삼았다.

동국대 입학처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취지에 따라 성장가능성에 무게를 뒀 선발했다”며 “업적도 뛰어나고 가능성도 높았으나 자신의 추천 내용이 지원 전공과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지원자가 있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하영 임나정 기자

박진 국회의원도 취임 축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교교류의 활성화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서 자승스님은 남북 종교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인택 장관에게 “종교인들의 교류와 지원은 정부가 적극 도와 달라”는 뜻을 전했다. 사회부장 해경스님도 “남북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의식구조부터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 어린이 돕기나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 등 남북 종교인 교류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인택 장관은 “인도적 지원과 종교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교교류의 활성화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신재호 기자 ar501@ibulgyo.com

으로도 불교계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뒷받침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 장관의 예방에 앞서 종로

가 지역구인 박진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취임인사를 전했다.

장영섭 임태규 기자



美 대학교수, 105만 달러 기부 시바나탄 씨 “동국대 공학발전 위해”

미국의 대학교수가 동국대에 105만 달러(한화 12억여 원)를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일리노이 대학의 시바나탄 교수. 시바나탄 교수는 지난 16일 동국대를 방문해 기금 전달 약정서에 서명했다. <사직> 약정식에서 시바나탄 교수는 “동국대 양자가능반도체 연구센터 발전을 위해 쓰일 바란다”며 “그동안

높은 연구 성과를 도출해온 연구센터의 '나노-정보기술 연구'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바나탄 교수는 동국대 양자가능반도체연구센터 소장인 강태원 교수의 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개인적인 인연으로 기부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 지난 11월 18일자(2575호) 본지 1면의 띠 ‘급속히 확산되는 신종플루 신속대처법 12면’은 기사 넘쳐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기획실 감사국장-법귀스님 사업단 사무국장-덕조스님

총무원 국장급 추가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6일 전통불교문화원장에 혜오스님을 임명한 데 이어 총무원 기획실 감사국장에 법귀스님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덕조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감사국장 법귀스님은 1989년 흥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2년 석주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금어선원과 불국사 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해인총림 선원, 용주사 중앙선원, 마곡사 태화선원, 망월사 천중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부산 정광사 주지를 지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덕조스님은 1990년 송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 재무국장 및 사회국장을 역임했으며 가평 청운사 주지로 일하고 있다.

장영섭 기자

불레협, 겨울불교학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도경스님)는 오는 29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희망으로 가는 어린이 포교’를 주제로 ‘제44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연다.

각 사찰 불교학교나 포교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지도사를 대상

으로 하며, 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도 및 실기 강습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는 선착순 100명에 한해 전화 및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 참가자에게는 교재와 찬불가 플래시 CD를 지급한다.

임나정 기자

고불총림 백양사, 26~29일까지 ‘숲 명상치유’ 템플스테이 개최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스님)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특별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백양사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숲과 명상치유를 주제로 한 템플수련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회에는 명상과 숲 전문인들이 나서 참가자들의 휴식과

치유를 돕는다. 3박4일간 백양사 포교국장 지경스님이 명상치유를 주관하고, ‘숲 박사’ 신원섭 총부대 삼립과학부 휴양학연구실 교수와 김형태 조선이공대 교수가 숲치유를 담당한다. 이들은 숲 속에서 오감 체험·명상하기, 삼림욕, 선 체조, 신발·양말 벗기 시험과

맨발 걷기, 행인피리·가래·나무목걸이 만들기 나이트 알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백양사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백암산 일원에서 ‘단풍축제 추아몽’을 개최했다. 첫날 호국영령과 지역발전을 위한 영산대제에 앞서 시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가을단풍이 흠날리는 백암산에서 불법의 진수를 받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현경 기자 eonakdo@ibulgyo.com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현장에서 3원 별원화 전통 이어가야

지난 16일 감사국장과 사업단 사무국장 임명을 끝으로 제33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 인선이 완료됐다. 총무원 집행부 인선과정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바뀌었으니 포교원 교역직 스님들도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성 이야기가 간간히 나돌았다. 이같은 추측성 이야기는 뜬금없는 소문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총무원 집행부 인사에 이은 포교원 집행부 인사 단행은 없었다. 1994년 종단 개혁을 거치며 조계종은 총무원과 포교원, 포교원이 별원화돼 독자적인

인사시스템을 갖추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원장의 임기가 4년인데 반해 포교원장과 포교원장의 임기가 5년으로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총무원과 포교원, 포교원의 교역직 스님들의 인사는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 신임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포교원장 혜총스님과 만난 자리에서 3원 별원 체계를 인정하며 “앞으로도 포교원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3원 별원화 후 혜총스님이 5대 포교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하지만 혜총스님 직전에 포교원장 소임을 맡았던 도영스님 단 행명만 임기를

다 채웠을 뿐이다. 포교원장 혜총스님의 임기는 아직 2년이 남았다. 이제 종단이 안정된 만큼 임기동안 소신껏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종도들로부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말과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져야 한다. 전통은 사부대중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함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표준법요집(상용의식편) 편찬을 위한 공청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에서는 불기2553(2009)년 한글법요집 개정방안 연구 사업을 통해 표준법요집(상용의식편) 편찬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제방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553(2009)년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한글의식 시연

- 한글의식 : 상단불공 (유치, 청사, 예참, 천수경, 축원 등)
- 시 연 : 인복스님 (한글법요집 편찬연구위원, 어산작법학교장)
- 법안스님 (한글법요집 편찬연구위원, 어산작법학교 교수)

주제발표

- 사 회 : 홍사성 (불교평론·유심 편집위원)
- 기조발제 : 표준법요집 해제 동성스님(포교원 포교연구실장)
- 제 1발제 : 표준법요집과 의례구조 이 성 운(한글법요집 편찬연구위원, 정우서적 대표)
- 토 론 : 현진스님(여의도 포교원 원장), 신 규 탁(연세대 철학과 교수)
- 제 2발제 : 한글화의 원칙과 실제 이 도 흥(한글법요집 편찬연구위원, 한양대국문학과 교수)
- 토 론 : 현종스님(명상문화연구원 원장, 전 불학연구소장), 김 호 성(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 문 의 : 02-2011-1910 / yousong@buddhism.or.kr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광대무변의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의 물질로 만든 운석탑

영겁의 시공간을 넘어서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지구를 찾아온 우주손님인 운석!!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은 단 한 개뿐일 정도로 귀한 운석!!

세계 곳곳에 은밀히 흩어져 있던 운석들을 가공하여 정성 드려 만든 높이 7.8m, 9층 석탑이 완성되었다.

운석으로 만든 탑은 유사 이래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그 누구도 건립할 수 없는 세계와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탑이다. 운석탑 속에는 우주의 거대한 기와 에너지가 영겁의 세월동안 축적되어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운석을 한곳에 모음으로 우주와 세계의 중심이 이곳에 모이게 되며 우주의 별들이 내려앉은 이곳에 신도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게 될 것이며, 그들의 기도의 도량으로 불국정토의 세계를 이루는 축이 될 것이다.

운석탑을 귀 사찰에 모시어 중생들의 소원 성취와 우주 곳곳에 존재하는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경험하게 하며, 만세에 부처의 법을 펼침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새암홀딩스(주) 011-714-1661 김 방 원